

英才教育研究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1995, Vol. 5, No. 1, pp. 117~120

<토론2>

“영재교육에 있어서의 교수방법 및 교수전략”에 대한 토론

김 명 속
(한국교육개발원)

발표자는 영재들만의 독특한 특성을 살피고 영재를 위한 교육과정과 교수내용 및 방법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제시한 후에 영재를 가르치기 위한 교수방법 및 교수전략을 비교적 포괄적이고 망라적으로 제시하였다. 발표자가 소개한 영재를 위한 다양한 교수방법 및 교수전략은 일선 현장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발표자가 제시한 영재 학생을 위한 교수방법을 선택하거나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6가지의 준거(고등 사고 기능이나 고급의 원리나 명제를 획득시키는가? 교수방법이 개방적인가? 인지적으로 자극을 주는 학습환경을 제공하는가? 영재학생을 소외시키지 않는가? 학습을 지루하게 하는가? 영재학생이 가치롭게 느끼는 학습과정을 제공하는가?)는 일선 교사들이 여러가지 교수방법 또는 모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것이다. 다만 소개된 각각의 교수 방법들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나 우리나라 현실에서의 적용 가능성 또는 적용 방법 등이 아울러서 논의되었다면 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발표자가 영재를 위한 교수방법을 다양하게 소개하였기 때문에 본인은 여기에서 더 이상의 새로운 교수방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영재를 위한 교수방법을 제시할 때에 고려해야 할 몇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영재를 위한 교수 방법을 논하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영재의 특성과 이들이 선호하는 학습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영재는 일반 학생에 비하여 높은 지적 능력과 빠른 학습 속도를 갖고 있으며 다양한 흥미, 자율적인 학습태도, 끈질긴 과제 집착력, 강한 독립성과 자신감, 내적인 통제 능력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영재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특성에 적합한 학습 유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Ricca (1984)의 연구에 의하면, 영재가 선호하는

학습 유형은 교육적 게임(teaching game), 개인 연구(individual study), 프로그램 학습, 프로젝트, 시뮬레이션, 급우에 의한 교수(peer teaching), 토의, 강의, 그리고 반복 연습과 암송의 순으로 나타났다.

Griggs와 Dunn (1984)에 의하면 영재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1)교사에 의해 동기화(teacher-motivated)되기 보다는 독립적이고 자발적으로 동기화(self-motivated)되며, (2) 상당히 구조화된 학습과제보다는 비구조화되고 유동적인 학습과제를 더 즐기며, (3)수업에 방관자적 접근 보다는 능동적인 참여를 선호하며, (4)지각적 통합능력이 뛰어나 청각적, 시각적, 촉각적 등 여러가지 감각통로를 통해서 배우며, (5)혼자서 공부하거나 다른 영재들과 공부하는 것을 선호한다(Dunn & Griggs, 1985)고 하였다. 물론 영재들 중에서도 좋아하는 학습유형에 개인차가 있다(Ricca, 1984).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습유형이 적용될 때 학업성취도나 학교에 대한 태도가 향상될 것이라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영재의 특성 및 학습 유형을 고려하면, 영재를 위한 교수 방법 및 교수 전략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가. 영재들의 知的 호기심을 자극하고 끊임없이 知的 도전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영재들의 다양한 흥미와 지적 욕구, 학습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그들 스스로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다.

나. 미래의 연구 생활에 기초가 될 知識을 축적하고 연구機能과 탐구態度를 함양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 자율적 탐구를 안내하고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를 모두 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추리력, 비판력, 분석력, 상상력 등을 구사하도록 요구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탐구활동이 주요 학습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라. 지적 능력이 서로 비슷한 영재들로 구성된 집단학습 속에서 상호 자극과 반응에 의해서 서로 相乘的 지적 성취를 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토의등 학생과 학생간 및 학생과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마. 학습활동은 원칙적으로 學生中心이어야 하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이 조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영재의 인지적 능력 이외에 정의적 측면도 개발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발표자가 소개한 15개의 영재를 위한 교수 모형 및 교수 전략은 모두 이러한 특성을 몇 가지씩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Renzulli의 3단계 심화학습 모형, Feldhusen의 3단계 심화 모형, Williams의 인지적-정의적 교수-학습 전략 모형은 앞서 논의된 영재를 위한 교수방법이 갖추어

야 할 특성의 거의 대부분을 갖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개된 모형 중에서 Williams의 인지적-정의적 교수-학습 전략모형만이 거의 유일하게 호기심과 의지, 과감성과 격려, 복잡성과 도전, 상상력과 영감 등의 정의적 행동에 비중을 많이 두고 이를 계획적으로 개발시키려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영재를 위한 교수방법을 논의할 때마다 제기되는 의문점은 영재를 가르치기 위한 교수방법이나 전략이 일반 학생을 위한 교수 방법이나 전략과 질적으로 달라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들 교수 방법이 그 성격은 본질적으로 같되 다만 어떤 특성이 강조되는 정도나 다루어지는 교육내용의 수준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본인의 입장은 영재에게 효과적인 교수방법과 일반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교수방법은 기본적으로 그 성격을 같이 하되 다만 어떤 교수 방법의 이론적 특성이 부각되는 정도 및 다루어지는 교육 내용의 수준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고 본다. 즉 영재들에게 효율적인 교수방법의 특성은 지적인 능력이 뒤떨어지는 극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에게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최근의 세계적 추세는 일반 학생을 위한 교육에서도 교육의 수월성을 강조하여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력 등의 고급 사고력과 탐구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영재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와 다를 바가 별로 없다. 따라서 비슷한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강구하는 교수 방법은 자연히 서로 유사할 수밖에 없다. 발표자도 영재를 위한 교수방법이나 교수 전략이 일반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수 방법이나 전략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새로운 기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들은 서로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함으로써 영재를 위한 교수방법이 일반 학생을 위한 교수방법과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달라야 한다고 하지는 않고 있다.

앞서 소개된 Ricca(1984)의 연구에서도 영재와 일반 학생은 모두 여러가지 학습유형 중에서 교육 게임을 제일 선호하고 암송이나 반복 연습을 제일 싫어한다고 하였다. 즉 일반 아동들도 주입식 암송과 반복연습을 제일 싫어하되 영재들은 주입식 암송과 반복 학습의 수업형태를 싫어하는 정도가 일반 아동들 보다 심하다는 것 뿐이다. 한가지 차이점은 일반 학생들이 급우에 의한 교수(peer teaching)나 교사의 강의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반면 영재들은 개인연구(independent study)를 훨씬 더 선호하였다. 즉 영재와 일반 아동들이 선호하는 학습유형 비교연구에서 특기할 점은 대체로 영재가 일반 아동들보다 더 독립적이고 자기탐구적이고 일반 아동들은 영재들 보다 교사의 도움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 일반 아동들은 영재와는 반대로 암송과 반복학습을 좋아하고 탐구나 직접경험을 강조하는 수업을 싫어한다는 것은 아니다. 일반 아동들도 교사의 안내만 적절히 주어진다면 직접경험에 의한 탐구식 발견학습, 교육게임, 토의 등을 활용한 수업을 암기식 수업보다 훨씬 더 선호한다. 또한 이러한 수업형태는 기존의 많은 문헌(예, Bruner, Dewey, Piaget)에서 주장되었듯이 대부분의 아동들에게 유익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영재교육을 위한 교수방법과 일반 학생을 위한 교수 방법을 차별화시키는 것은 무엇인

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교수 방법의 본질적인 차이에서 찾기 보다는 교수방법에서 역점을 두는 특성이나 다루어지는 내용의 폭과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일반 학생을 위한 교수 방법에서도 탐구, 토의, 프로젝트, 개별 연구 등과 같이 고급사고력을 양성하고 학생의 흥미를 개발하는 방법을 활용하되 영재를 위한 교수방법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는 빈도나 수준 및 폭을 강화하고 다루는 내용도 훨씬 어렵고 다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영재를 위한 교수방법과 일반 아동을 위한 교수방법이 갖는 차이점의 성격을 인식하면 여러가지 상황에 처한 인선 학교에서 영재 교육을 실시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발표자가 소개한 영재를 위한 교수방법의 논의를 향후 연구에서 보다 더 전개시킨다면 여러가지 교수 방법이 다양한 맥락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교수방법의 다양한 활용이 영재 학생과 일반 학생이 섞여 있는 경우, 월반이나 속진이 허용되는 경우, 일반 학교에서 영재들만을 위한 특별 수업(pull-out program)이 허용되는 경우, 또는 영재만을 위한 학교의 경우 등의 다양한 맥락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교수 방법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영재 학생에게 유익한 교수방법이 수준만 맞으면 일반 학생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상정하는 경우에는, Renzulli의 삼부 심화 학습모형에서 처럼 영재를 위한 교수방법 및 학습 내용이 일반 학생의 수준에 맞는 어느 시점까지는 일반 학생에게도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 영재와 일반 아동이 섞여 있는 우리 나라 대부분의 학교에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고 생각한다.